

애물단지 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195억원을 들여놓고도 성능 미달 논란으로 잡음이 일더니 이번에는 생산한 가연성 폐기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판매처를 찾지 못해 3개월 넘도록 가동이 멈춰선 상태다.

혁신도시를 비롯, 나주·화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유지관리비는 나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시는 또 기계 성능인중 조작 및 기계구입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다음달에는 전 위탁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90억짜리 애물단지=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지난 6월 12일 익산 발전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뒤 3개월 넘도록 가동을 멈추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성능 미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데다, 잦은 고장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고형연료로 생산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고형연료 판매처를 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하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원료로 쓰는 발전소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나주 열병합발전소도 연료를 쓰기 위해서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 이뤄지려면 11월을 넘겨야 할 것으로 나주시는 예측하고 있다.

광역자원화시설이 생산하는 고형연료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을 10%

고형연료 판매처 찾지 못해 3개월 넘게 가동 중단 성능 미달 논란 이어 잇단 잡음 속 예산 낭비 지적 나주시, 하자보수 관련 위탁업체 손배소 제기키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전경. 성능 미달·연료 판매처 미확보 등으로 시설 가동이 멈췄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이하의 압축 폐기물인 '성형' 고형연료로, 열병합발전소는 수분율이 25% 이하인 '비성형' SRF를 연료로 써 일정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광역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곳으로 들어오던 나주·화순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보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화순지역에서 반입된 생활 쓰레기(하루 평균 50t)를 고형연료로 생산, 처리해야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시설 관리·유지를 위

한 예산은 나주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측은 새 위탁업체를 지정하고 정상 가동까지 최소인력만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수천 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끊이지 않는 잡음=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은 생활 쓰레기 선별과 파쇄,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 팔레트 형태의 고형화 물질을 만드는 곳으로 195억원을 투입, 2014년 준공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준공 이후 시공을 맡

았던 H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으로 제 때 처리하지 못해 매립장으로 보낸 쓰레기만 1625t에 달했다.

지금도 시설 가동 중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운영 과정에서 성능 미달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 고형연료 생산율(40% 미달), 불연물 발생율(40% 이상)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보수가 이뤄졌지만 나주시와 위탁업체인 H사 간 하자 여부에 따른 입장이 달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달 위탁업체가 새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하자 보수와 관련, 시공을 맡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다음달 H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아울러 잦은 고장으로 제 때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장으로 보낸 쓰레기(1625t) 문제도 별도 소송으로 제기키로 했다.

나주시는 이와함께 부실 운영과 관련, 시설에 근무했던 전 직원들이 근무인력 조작, 기계 구입 과정에서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주시 안팎에서 광역자원화시설을 놓고 총체적 문제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주시의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광역자원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SRF)를 에너지원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칫 열병합 발전소의 정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주민들이 20일 오전 나주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광주에서의 연료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 대표 제공>

난방공사 광주서 연료 반입 열병합발전소 시운전 강행

나주시 수용 불가 방침

주민들은 반대 시위

겨울 난방공급 차질 우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설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광주일보 8월 24일·9월 1·14일 11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가 광주에서 연료를 반입해 시운전을 강행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 반입 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은 발전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칫 겨울철 혁신도시 주민들의 난방 공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날 광주에서 반입한 '비성형'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이용한 발전소 시운전을 시작했다.

다음달 예정된 폐자원에너지센터의 보일러 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발전소 준공이 이뤄져 겨울철 혁신도시 내 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난방공사측 설명이다.

난방공사측은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어온 고형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폐기물로 생산한 고형연료(SRF)를 공급받아 쓰기로 했지만 실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파악한 결과, 계획량 대비 30%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대로라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하루 평균 466t)에 견줘 241t이 부족하다는 게 난방공사측 설명이다.

난방공사측은 이 과정에서 기존 광주지역에서 반입한 비성형 SRF가 아닌, 나주·화순 등에서 생산하는 성형 고형연료도 반입해 자체 처리를 거쳐 연료로 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측이 성형 SRF 처리를 위한 시설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난방공사측이 그대로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생산하는 고형연료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을 10% 이하의 압축 폐기물인 '성형' 고형연료로, 열병합발전소는 수분율이 25% 이하인 '비성형' SRF를 연료로 써 일정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나주시의 경우 애초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에서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데 따른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진구 나주시장은 지난 18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전까지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 반입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발전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후에 공청회를 열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준공식 갖고 본격 운영

나주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준공됐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최근 공산면 남창리 소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단지는 41억원을 들여 1만4973㎡ 부지에 조성됐으며 비 공동 육묘장(1080㎡), 비 건조저장시설(665㎡), 비 보관시설(663㎡), 비 가공 및 도정시설(999㎡) 등을 갖췄다.

나주시는 단지 운영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주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준공식이 최근 강진구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주시 제공>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데다,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주시는 분석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통구조 전환이 이뤄지면서 농업인 중심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판매 가능해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진구 나주시장은 "나주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